

독도는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는 우리 선조들의 땀과 피와 땀이 스민 소중한 우리의 땅,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신성한 우리 조국의 령토이다.

독도가 력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령토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 일본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독도령유권》을 한사코 주장하면서 졸렬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내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도쿄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한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데 이어 도쿄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를 소개하는 TV영상을 방영하면서 시마네현청에 있는 《다케시마마로실》이라는 간판을 의도적으로 로출시키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내외의 강한 비난과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관방장관을 비롯한 정부고위관계자들을 내세워 《<다케시마>는 일본고유의 령토》, 《맹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왔다. 이것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왜나라족속들의 흥제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조선반도체침책동이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재침야망에 들떠 령토강탈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열기는 분노의 활화산되어 더욱 거세게 타오를것이다.

글 본사기자